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3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학습자용 교재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이 교재를 사용하는 법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습 전 필수 기초'를 먼저 읽는다. 전체 학습은 기초 35분과 8개 Part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60분 핵심 학습도 왜 배우는지·개념의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고 사례 수를 줄여 진행한다.

학습 목표

- 고정·변동·비정기 지출을 구분한다.
- 순현금흐름과 필수생활비를 계산한다.
- 가구 상황에 맞는 비상자금 목표와 적립 순서를 정한다.
- 적자가 생기면 보호할 지출과 줄일 지출을 구분해 대응한다.

학습 전 필수 기초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예산은 절약표가 아니라 생활을 꾸기지 않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도 월세·보험료·세금이 한꺼번에 나가면 결제일에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빼놓으면 흑자처럼 보이던 가계도 갑자기 흔들립니다.

수입·지출·날짜·필수생활비·비상자금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뒤에 예산표와 위기대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가계예산은 돈을 아끼라는 명령이 아니라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을 맞추는 계획입니다.
- 매달 같은 지출, 달마다 달라지는 지출, 가끔 큰돈이 드는 지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비상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소득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대비해 따로 둔 돈입니다.
- 적자가 예상되면 추가 대출보다 먼저 지출 시기 조정과 공적 지원·상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학습이 지키는 것

- 주거비
- 식사·의료·교통
- 납부일의 현금
- 소득중단 시 버틸 시간
- 가족의 공동지출 약속

생활안전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순서	무엇을 하는가
1	수입과 지출의 금액·날짜를 적습니다.
2	필수·선택·비정기 지출을 나눕니다.
3	부족해질 시점과 생활비 바닥선을 찾습니다.
4	비상자금과 단계별 조정 행동을 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각 개념은 뜻만 외우지 않습니다. 생활 예와 반대 예를 대조한 뒤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1 · 현금흐름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25일 월급과 20일 월세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월말 합계만 보고中间的 부족한 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현금흐름은 금액과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

확인해 봅니다

월말에 돈이 남으면 중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나요?

답과 이유: 있습니다. 지출일이 수입일보다 빠르면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 2 ·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반복 방식에 따라 지출을 나눈 것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월세는 고정, 식비는 변동, 자동차보험은 비정기 지출로 봅니다.	매달 나오지 않는 세금을 뜻밖의 지출로만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지출 성격을 나누면 줄일 수 있는 것과 미리 준비할 것을 찾기 쉽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인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비정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

기초개념 3 · 필수생활비

당장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비용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주거·식사·의료·출근 교통비를 우선 남깁니다.	모든 고정지출을 무조건 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필수생활비는 비상 시 무엇을 먼저 보호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구독료는 자동이체이므로 항상 필수생활비인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자동이체 여부와 생활 필수성은 다릅니다.

기초개념 4 · 비상자금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쓰는 접근 가능한 돈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실직 기간의 월세와 식비를 위해 별도 계좌에 둡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전부 가격변동 상품에 넣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비상자금은 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사용 시점을 우선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오늘 필요한 비상자금을 팔기 어려운 자산에 두어도 되나요?

답과 이유: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개념 5 · 생활비 바닥선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월세·기본 식비·치료비·출근비를 합쳐 보호 금액을 정합니다.	평소 카드지출 전부를 바닥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바닥선은 대출상환·저축·선택지출 조정 전에 보호할 영역을 정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적자가 나면 모든 지출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필수생활비를 먼저 보호하고 선택지출부터 조정합니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용어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필요한지와 실제 판단 순서를 생활 사례로 익힙니다.

기초학습 1 · 잔액과 현금흐름

돈이 있는데 왜 월말에 부족할까요?

잔액은 한 시점에 남아 있는 돈이고, 현금흐름은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입니다. 월초 잔액만으로는 월말 부족을 알 수 없습니다.

수입일과 지출일을 달력에 놓으면 총액이 같아도 특정 날짜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정기 수입의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 2. 필수지출과 자동이체 날짜를 적습니다.
- 3. 날짜별 예상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찾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월급은 25일인데 카드값은 20일에 빠진다면 월 총수입이 충분해도 20일에 결제 실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시점과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월 수입 250만원, 지출 230만원이면 예산 점검이 필요 없을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지출 시점과 비정기 지출 때문에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2 ·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지출을 왜 세 종류로 나눌까요?

고정지출은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고, 변동지출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정기 지출은 매달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수리비처럼 예상 가능한 큰돈입니다.

종류를 나누면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미리 적립해야 하는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최근 3개월 내역을 모읍니다.
- 2. 각 지출을 고정·변동·비정기로 표시합니다.
- 3.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상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연 60만원 보험료는 결제월에 갑자기 생긴 지출이 아니라 매달 5만원씩 준비할 수 있는 비정기 지출입니다.

흔한 오해: 고정지출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약 갱신이나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명절비는 매달 없으니 예산에서 빼도 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로 월별 준비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학습 3 · 필수생활비와 선택지출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필수생활비는 주거·식사·의료·교통처럼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선택지출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 비교적 쉬운 비용입니다.

적자 때 모든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건강·주거·근로 유지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 2. 연체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지출을 구분합니다.
- 3. 조정 가능한 항목의 금액과 시기를 바꿉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교통비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출근을 유지하는 필수비용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독서비스는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라는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한도를 정해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적자가 나면 월세와 통신 구독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생활 유지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4 · 비상자금과 적자 대응

비상자금은 얼마가 정답일까요?

비상자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이 없습니다. 필수생활비,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의료·주거 위험에 따라 필요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비상자금은 수익을 높이기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원금 변동이 작은 곳에 두는 목적이 큼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한 달 필수생활비를 계산합니다.
- 2.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기간과 큰 지출 위험을 추정합니다.
- 3. 목표액·월 적립액·사용 후 보충 규칙을 정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정규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더 긴 기간의 필수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비상자금을 투자상품에 넣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비상자금 목표가 크면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작은 1차 목표부터 쌓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교재가 먼저 보여 주는 시범풀이

연간 지출을 빼먹은 예산

매달 10만원이 남는다고 생각했지만 12월에 보험료 72만원을 내야 합니다.

1. 결정: 보험료를 월예산에 포함합니다.
2. 정보: 연간 72만원을 12개월로 나눕니다.
3. 위험: 매달 6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12월에 부족합니다.
4. 행동: 매달 6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적립합니다.
5. 기록: 납부일과 적립 잔액을 월 1회 확인합니다.

매달 나오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비용은 월예산에 나누어 넣어야 합니다.

기초 이해확인

1. 월말에 돈이 남으면 중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나요?

확인: 있습니다. 지출일이 수입일보다 빠르면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인가요?

확인: 아닙니다. 비정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

3. 구독료는 자동이체이므로 항상 필수생활비인가요?

확인: 아닙니다. 자동이체 여부와 생활 필수성은 다릅니다.

4. 오늘 필요한 비상자금을 팔기 어려운 자산에 두어도 되나요?

확인: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5. 적자가 나면 모든 지출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

확인: 아닙니다. 필수생활비를 먼저 보호하고 선택지출부터 조정합니다.

6. 월 수입 250만원, 지출 230만원이면 예산 점검이 필요 없을까요?

확인: 아닙니다. 지출 시점과 비정기 지출 때문에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7. 명절비는 매달 없으니 예산에서 빼도 될까요?

확인: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로 월별 준비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적자가 나면 월세와 통신 구독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할까요?

확인: 아닙니다. 생활 유지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9. 비상자금 목표가 크면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요?

확인: 아닙니다. 작은 1차 목표부터 쌓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9개 질문의 뜻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Part 1로 이동합니다. 어렵다면 해당 기초개념을 다시 읽고, EDU-00 공통 기초과정을 먼저 학습합니다.

PART 1 · EDU-03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기초개념을 배운 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다·연습이 필요하다'로 표시한다.

- ☐ 나는 현금흐름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나는 '변동지출'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 ☐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 ☐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 ☐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 ☐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 ☐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0~2개: Part 3과 4부터 천천히 읽는다. 3~5개: 사례에서 결정 이유를 말한다. 6~8개: 가족·동료와 확인 규칙을 공유한다.

PART 2 · EDU-03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안전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금융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정보의 비대칭, 기록의 부재,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 때문에 커진다. 따라서 이 모듈은 '알기→비교하기→행동하기→기록하기'의 순서를 반복한다.

이 모듈의 핵심 관점

-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
-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
- 명절·보험료·세금·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
-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

PART 3 · EDU-03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용어	생활 속 뜻	확인 행동
현금흐름	일정 기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움직임.	내 계약·거래에서 '현금흐름'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순현금흐름	수입에서 지출과 상환을 뺀 금액.	내 계약·거래에서 '순현금흐름'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고정지출	매달 금액이나 납부일이 대체로 정해진 지출.	내 계약·거래에서 '고정지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변동지출	사용량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	내 계약·거래에서 '변동지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비정기지출	매달은 아니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지출.	내 계약·거래에서 '비정기지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필수생활비	주거·식사·의료·교통 등 당장 지켜야 할 비용.	내 계약·거래에서 '필수생활비'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비상자금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유동성.	내 계약·거래에서 '비상자금'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생활비 바닥선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	내 계약·거래에서 '생활비 바닥선'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핵심 사실

[일반 원칙] 비상자금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법정 정답은 없다. 필수생활비와 소득 변동을 기준으로 정한다.

확인할 조건: 가구 상황과 부양·의료·주거비를 반영한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교육 · 검토일 2026-08-22

[조건 확인] 복지·긴급지원은 소득·재산·위기사유·거주지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할 조건: 복지رو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한다.

출처: 복지로 · 검토일 2026-08-22

[일반 원칙] 상황이 어려워질 징후가 보이면 추가 차입 전에 채권자와 공적 상담기관에 문의한다.
확인할 조건: 조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채무별로 다르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검토일 2026-08-22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독·후불결제는 다음 달 현금흐름까지 차지합니다

작은 월 결제도 여러 개가 겹치면 비상자금과 필수생활비를 줄입니다.

하지 않을 것: 이번 달 결제액만 보고 무료체험과 자동갱신을 빼놓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자동이체·카드 정기결제·후불결제의 다음 청구일과 해지 조건을 한 표에 모읍니다.

지금 할 일: 필수생활비를 먼저 떼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달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검토 2026-08-24
<https://fine.fss.or.kr/>

구조를 읽는 네 질문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맡기는가?
- 언제 조건이 바뀌거나 의무가 생기는가?
- 손실이 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록과 기한이 필요한가?

PART 4 · EDU-03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단계 비교 카드

1.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2. 월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번 달과 가장 많이 쓴 달도 본다.
3. 필수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비상자금이 몇 달을 버티는지 적는다.
4. 정상·주의·비상 단계별로 중단할 지출과 연락할 기관을 정한다.
5. 30일 뒤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한다.

숫자 하나가 정답이 아니다. 목적·시점·총비용·최악의 결과·권리·증거가 함께 맞아야 한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법

선택한 안만 적지 말고 제외한 안과 그 이유도 적는다. 나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확인 시점	보인 정보	선택·제외 이유	다음 확인
결정 전	공식 설명·계약 조건	비용·위험·권리 비교	기준일·기한
결정 직후	거래·서명 결과	예상과 실제 차이	철회·변경 가능성
정기 점검	잔액·청구·공시 변화	계속·조정·종료	다음 점검일

PART 5 · EDU-03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CASE 01 ·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

연간 지출을 빼고 매달 예산만 맞췄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 ☐ B. 카드 한도를 늘린다.
- ☐ C. 저축을 모두 해지한다.

권장 선택: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판단의 갈림길: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안전한 선택
B	카드 한도를 늘린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저축을 모두 해지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2 ·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

좋은 달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정했다.

어떻게 행동할까?

☐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 B. 다음 달 수입을 낙관해 결제한다.

☐ C. 세금 몫까지 생활비로 쓴다.

권장 선택: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판단의 갈림길: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안전한 선택
B	다음 달 수입을 낙관해 결제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세금 몫까지 생활비로 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3 · 갑작스러운 치료비

비상자금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찾는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 ☐ B. 광고 대출을 즉시 받는다.
- ☐ C. 진료를 무조건 미룬다.

권장 선택: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판단의 갈림길: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안전한 선택
B	광고 대출을 즉시 받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진료를 무조건 미룬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4 · 명절과 세금

예상 가능한 큰 지출이 같은 달에 몰렸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 ☐ B. 그달 카드 할부로 넘긴다.
- ☐ C. 자동납부를 모두 끊는다.

권장 선택: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판단의 갈림길: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안전한 선택
B	그달 카드 할부로 넘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자동납부를 모두 끊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5 · 가족 생활비 갈등

누가 무엇을 내는지 말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 ☐ B. 한 사람이 모든 계정을 통제한다.
- ☐ C. 부족할 때마다 서로 빌린다.

권장 선택: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판단의 갈림길: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안전한 선택
B	한 사람이 모든 계정을 통제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부족할 때마다 서로 빌린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PART 6 · EDU-03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정상: 예정지출 적립과 비상자금을 자동화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2. 주의: 선택지출을 멈추고 납부일·상환일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3. 비상: 주거·식사·의료·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즉시 상담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4. 회복: 밀린 비용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재발 방지 규칙을 정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활동지 4종 활용

활동지	기록할 내용
월간 현금흐름표	입금일·금액 · 필수지출 · 선택지출 · 월말 잔액
필수생활비 바닥선	주거 · 식사·의료 · 교통·돌봄 · 최소 합계
비상자금 목표표	목표 기간 · 현재 금액 · 월 적립액 · 보관 장소
30일 재설계표	멈출 것 · 줄일 것 · 문의할 것 · 검토일

PART 7 · EDU-03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갖출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내가 확인할 권리

- 복지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권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재무·채무 상담을 받을 권리
- 금융회사에 연체 전 상환곤란을 알리고 가능한 조정을 문의할 권리
- 가구원 각자의 사생활과 동의 범위를 존중받을 권리

권리를 쓰기 위한 다섯 칸

사실	쟁점	증거	요구	기한
누가·언제·무엇을	무엇이 다름	계약·거래·연락	구체적 답변·조치	근거와 확인일

도움 요청 문장

‘저는 ○월 ○일 ○○ 계약·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사실은 ○○이고, 가진 증거는 ○○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조치는 ○○입니다. 적용 기한과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식 확인처

기관	확인 내용	주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s://kostat.go.kr/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https://www.bokjiro.go.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재무상담	https://www.kinfa.or.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PART 8 · EDU-03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핵심 복습

-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
-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
- 명절·보험료·세금·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
-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
-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 월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번 달과 가장 많이 쓴 달도 본다.
- 필수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비상자금이 몇 달을 버티는지 적는다.
- 정상·주의·비상 단계별로 중단할 지출과 연락할 기관을 정한다.
- 30일 뒤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한다.

사후평가 10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은 별도 평가 세트와 웹 화면에서 확인한다.

1.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 ☐ A.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 ☐ B.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
- ☐ C.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
- ☐ D.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 ☐ A. 현재 보이는 금액만
- ☐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 C. 광고 순위와 후기 수
- ☐ D. 친구가 선택한 상품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 ☐ A. 기억해 둔다.
- ☐ B.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
- ☐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 D.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 ☐ A.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
- ☐ B.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
- ☐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 D.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 ☐ A.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벌다.
- ☐ B.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
- ☐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 D.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

6. 사례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 ☐ B. 카드 한도를 늘린다.
- ☐ C. 저축을 모두 해지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7. 사례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 ☐ B. 다음 달 수입을 낙관해 결제한다.
- ☐ C. 세금 뭉까지 생활비로 쓴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8. 사례 '갑작스러운 치료비'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 ☐ B. 광고 대출을 즉시 받는다.
- ☐ C. 진료를 무조건 미룬다.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9. 사례 ‘명절과 세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 ☐ B. 그달 카드 할부로 넘긴다.
- ☐ C. 자동납부를 모두 끊는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10. 사례 ‘가족 생활비 갈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 ☐ B. 한 사람이 모든 계정을 통제한다.
- ☐ C. 부족할 때마다 서로 빌린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30일 뒤 점검

오늘 바꿀 행동 1개, 확인할 공식 출처 1개, 함께 점검할 사람 1명, 다시 볼 날짜 1개를 적는다.

주차별 실천 기록

주차	확인한 행동·거래	새로 알게 된 사실	다음 주 행동
1주			
2주			
3주			
4주			

부록 A · 내 생활 적용 체크리스트

수업이 끝난 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는 적지 않고 확인 여부와 다음 행동만 표시한다.

점검 질문	확인	다음 행동·날짜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 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	☐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	☐	
명절·보험료·세금·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	☐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	☐	
정상: 예정지출 적립과 비상자금을 자동화한다.	☐	
주의: 선택지출을 멈추고 납부일·상환일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한다.	☐	
비상: 주거·식사·의료·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즉시 상담한다.	☐	
회복: 밀린 비용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재발 방지 규칙을 정한다.	☐	

한 달 회고

- ☐ 내가 멈춘 위험한 행동: _____
- ☐ 공식 정보로 바뀌 확인한 판단: _____
- ☐ 가족·동료와 새로 정한 규칙: _____

부록 B · 공식정보 확인·변경 기록

한도·요건·기한·기관 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적용 날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적는다.

기관	확인할 내용	확인 날짜·문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재무상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변경 이력

날짜	바뀐 내용	영향 받는 Part·활동지	확인자

내용 기준 2026-08-24 ·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긴급한 제도 변경은 정기점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영한다.